송담 스님은

친견 어렵기로 유명
불립문자 철저 추구



수좌계에 '북 송담, 남 진제'로 일컬어지며, 납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송담스님은 세간에 친견하기 가장 어려운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수년전까지 인천 용화선원의 매월 첫째주 일요 정기법회에서 법문하던 송담스님은 최근 74세의 고령에다, 필생의 불사인 전법제자 양성을 위해 출 재가를 막론하고 일체의 외부 법문과 친견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평소 토굴정신과 야인정신을 강조해 온 스님은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싫어해 시봉하는 스님들조차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용화선원 조실추대는 물론 수년전 봉암사 조실 추대를 사양하기 위해 자취를 감출 정도로 명예를 멀리하고 평생 수행과 참선 지도에만 매진해 왔다. 한 권의 법문집도 내지 않고, 법문 녹음테이프 조차 글로 풀지 못하게 하는 철저하게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추구하는 스님에게서 일체의 상(相)에 걸리지 않으려는 치열한 구도심을 읽을 수 있다.

지면에 소개하는 것 조차 망상을 피우는 것이 아닐까 자못 우려지만 스님의 법향을 단편이나마 접하고 싶은 불자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역사적인 근거를 남겨야 하는 것이 후학의 도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송담스님은 1929년 12월 生으로, 45년 전강스님을 은사로 출가득도해 사미계(법호 松潭, 법명 正顯)를, 51년 나주 다보사에서 전강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광주서중을 졸업하고 10년간 묵언정진 한후 깨달음을 얻어 전강스님의 인가를 받았다.



◇구랍 27일 인천 용화선원 법보전에서 봉행된 전강선사 26주기 추모재에서 송담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선원, 92년 시민선원을 잇따라 개설하면서부터, 선원장 송담스님은 "참선은 출재가를 막론하고 언제나, 누구든 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송광사신도회장을 역임한 조달공 성균관대 명예교수, 세계적인 음악 거장 故 윤이상씨 등 수 많은 재가불자들이 송담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부산과 광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 와 매월 정기법회에 참석하는 거사들을 비롯 많은 우바새·우바이가 스님의 법문에 따라 생활 속에서 정진하고 있다.

20여년전 송담스님으로부터 화두 드는 법을 배운 조달공 거사는 "스님은 신도들의 번거로운 질문에도 언제나 자상하게 대답해 주셨지만, 수좌들의 정진을 독려할 때에는 무척 엄하기도 하셨다"면서, "스님 법문의 특징은 세상의 어려운 현실을 활구참선법으로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참선법을 가르치는 데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송담스님은 최상승법인 활구참선을 수좌들은 물론 재가불자들에게도 가르쳐 참선의 대중화 및 포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수행과 함께 포교에도 높은 원력을 가진 사실은 고려대장경 전산화 불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99년 2월 송담 스님의 첫 법문으로 시작된 용화선원 팔만대장경 전산화 후원은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려대장경연구소에 기사회생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날 25년동안 한번도 법상에서 용화사와 관련한 불사 모연을 하지 않으셨다는 스님은 불사를 위한 법석의 문을 활짝 열어 전자 대장경 불사를 왜 해야 하는지를 날낱이 일러 주고, 부처님 당시의 가난한 수달장자 비유를 통한 보시의 공덕을 법문하실 때 대중은 모두 그 엄중함과 간절함에 감동의 전율을 느꼈다고 한다.

그뿐 아니다. 스님은 들어온 밎은 공양물을 대장경 불사를 위해 돌렸고, 손수 당신 손으로 동참문을 받아 주시기도 하면서 먼저 귀감이 되었다.

치열한 구도와 스승의 배려로 생사의 대의 깨쳤으니…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스님은 "그와 같은 큰스님의 뜻이 있었기에 한해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스님과 신도들의 연속적인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서 "부처님의 종지를 이 땅위에 꽃피워 무질서와 혼돈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 말법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서원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세간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보이지 않게 중생구제의 방편을 제시하는 한편 필생의 과업으로 전법제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지막 원력을 쏟고 있다.

"도인의 책무는 부처님의 혜명을 이을 전법제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 온 송담스님은 말법시대에 수행자들의 구도열이 미약해진 것을 가장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이미 당신 열반 후 스승인 전강 선사처럼 화장 후 유골을 서해바다에 뿌릴 것을 유언한 송담스님은 오늘도 몸소 용맹정진을 보이며, 출·재가 제자들의 확철대오를 서원하고 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고통을 받더라도 '이 뭣고', 한 마디로써 모든 고통을 다 치료해 나갑시다. 미운 사람을 만나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나, 좋은 경계를 만나나, 괴로운 경계를 만났을 때, 환(幻)인 줄 깨닫는 법이 바로 '이 뭣고'이니, 이 화두를 놓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새로 태어나는 길입니다."

글·김재경/사진·고영배 기자
(jgkim@buddhapia.com)

물질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약아져서 힘은 적게 들이고 쉽게 목적하는 바에 도달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참선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약은 생각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바보가 되어, 자기의 온갖 지식과 상식을 다 버리고 백지상태에서 공부를 지어가야 한다.

"활구참선을 하려면 그 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불교에 관한 것은 물론 부처님이나 조사의 말씀까지도 다 놓아 버려야 해요."

송담스님은 활구참선을 위해서는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호흡을 바르게 하며, 생각을 옳게 지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말과 행동과 마음씀에 덧붙여 '이 뭣고'를 참구해야 하며, 앉아서나 서서나 걸어가면서나 일하면서나 일체처 일체시에 항상 '이 뭣고'를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속이 상할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성이 날 때나 외롭고 슬플 때나 원망스러울 때나 무슨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이 일어날려고 하자마자 탁 숨을 단전까지 깊이 들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뭣고', 숨이 다 나가면 또 들이 마셔서 내쉬면서 '이 뭣고', 이렇게 하다보면 치밀어 올라오던 가슴이 쑥 가라 앉으면서 저절로 계를 지키게 되고 참 나를 찾는 공부로 나아가니 이것이 바로 최상승법입니다."

송담스님은 처음에는 별로 재미도 없고 맛도 없지만 법문을 자주듣고 자꾸 법문대로 '이 뭣고'를 열심히 찾으면 차츰차츰 저절로 동요하지 않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며, 언제나 납자들을 자상하게 독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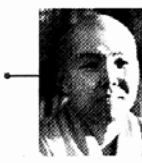
"번뇌망상이 일어나도 짜증 내지말고 그냥 그대로 놔둔 채 '이 뭣고'만 추켜들면 번뇌망상은 본래 뿌리가 없는 것이라 저절로 없어지고 화두가 순일하게 됩니다. 어떠한 찰나에 등의 밑구멍 빠지듯 툭 터져서 의단을 타파하게 되면 그때는 선지식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확철대오를 했으면 공부해 나가는 법을 지도받을 것이고 그것이 바른 깨달음이 아니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 가야 할 것입니다."

24시간 개방 시민선방에는 200여명의 불자 가부좌 틀고있다

용화선원은 하·동절기만 안거를 지내고 있는 다른 선원과는 달리 춘·하·추·동 4계절로 방부를 받고 있어 연중 선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잠시도 수행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스승 전강 선사의 간곡한 책려의 뜻을 받든 것이다.

특히 매일 24시간 개방하는 시민선방에서는 200여명의 불자들이 스님들의 지도를 받으며 원하는 시간에 가부좌를 틀고 화두에 몰입할 정도로 재가 수행자들의 정신적 고향이 되고 있다.

이곳이 국내 처음으로 시민들의 참선도량이 된 것은 지난 63년 산문을 나와 도심 한가운데 선원을 연 전강선사의 유지를 받든 송담스님이 84년 보살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법해스님

스님들 모두가 출가의 동기도 다르고 수행의 방법도 각기 다 다르다

요즈음은 기초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지만 몇년 전만 해도 자유였고, 마음자리 하나 닦으면 되지 뭘 글공부냐고 생각하는 어른 스님들이 이끄는 방향에 따라 자신의 수행방향도 달라지기 마련이었다. 보통 기초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비슷한 수행의 모양으로 닮기는 하지만 그 교육 기관에서 떠나면 각자의 살림살이는 다르다. 학문을 위해 서울로 가는 스님, 각자의 사찰로 돌아가서 포교와 주지의 소임을 사는 스님, 아니면 선원으로 들어가 참선하는 스님… 각기 다른 모양으로 수행의 자리를 굳혀간다.

법해스님은 법주사 수정암으로 출가를 했다. 그리고 운문사 강원(지금은 승가대학이라 하지만 강원이 더 정감이 가는 말이다)을 졸업한 후 곧장 선원에서 한 안거도 쉼없이 수행정진하고 있다. 지금은 대구 동화사 양지암에서 입승 소임을 맡고 있다. 이제는 스님의 나이 또래 수좌들이 나름대로 정진의 힘을 모아 보겠다고 대중보다는 토굴을 찾고 있는 실정인데도 스님은 대중과 더불어 정진을 해야만 게으름이 생기지 않고, 모두 토굴을 찾아가면 각 사찰마다의 선원을 찾는 초납자들의 버팀목 역할은 누가 하느냐면서 대중과 함께 정진하고

대중과 함께 20여년 정진

초납자들의 버팀목 역할

있다. 높은 수행의 경지는 오르지 못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일이 아니겠느냐는, 스님의 평소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많은 편리함속에 묻혀있는 내 살림살이가 그저 초라해 보이기만 하다

스님은 선원에서 정진하면서도 지병으로 오래 고생하신 은사스님의 병 간호도 지극했다.

때론 짜증을 부릴만 한데도 이것도 수행의 한몫이며, 노후에 나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열심히 수행해 오신 은사스님의 시봉을 할수 있는것도 나만이 가지는 큰 복이고 화두를 챙겨 가는 만큼 소중한 일이며, 수행의 한 부분이지 수행을 따로 떼어서 좌복 위에서만 이루워 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수좌의 근본 생각이 아니라고 하며 맑은 미소를 보인다.

은사스님 열반 후에도 스님은 입승 소임을 맡아 대중을 외호하면서도 틈틈이 스님 영전 앞에 49일 동안 기도하는 그 효성은 정말 지극했다.

또 스님은 학문을 하고 포교를 하는 도반들을 만나면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는다

나는 산중에서 앉아서 졸기만 하면 되지만 학문을 하거나 포교를 하여 한사람의 마음을 불심으로 바꿔 놓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스님은 모아 둔 용돈을 학인들에게 책값으로 주기도 하고 포교하는 스님들에게는 포교비용으로 사용하라고 넌즈시 건네 주기도 한다.

지난해 일이다. 도반의 은사스님 49재가 법해스님이 안거하고 있는 사찰에서 봉행됐다.

오래간만에 만난 도반들은 스님의 온기가 감도는 좁은 방안에서 손수 끓여 주는 차를 마시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스님이 문득 일어나 벽장에서 무언가를 꺼내왔다. 스님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신문스크랩이었다. 지면으로만 만날 수 있는 정운스님이기에 이 지면 속에 도반의 생각과 모습이 담겨있는 듯 하여 스크랩해 두었다고, 그리고 우리 도반이 쓴 글이라고 선원대중들에게 읽어주고 자랑을 했다고 하면서 방안에 있는 도반들에게 그 내용을 읽어 주었다. 내 도반 중에 이리 글을 쓰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고 일깨워 주는 도반이 있다는 것이 든든한 힘이 된다고 하며 다시 벽장속으로 넣는다. 작은 것 하나도 내 일인 양 기뻐하는 스님의 맑은 심성, 불립문자(不立文字)를 내세우는 수좌들의 근본자세와는 달리 좋은 글이 있으면 그냥 스치지 않고 읽을 줄 아는 스님이다. 수좌라고 대접받고 싶어하거나, 학문하는 스님, 포교하는 스님을 사판(事判)이라고 나무라기는 커녕



받아들이고 인정해 준다.

스님은 참으로 가식이 없다. 법해스님을 보고 있노라면 비운다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확신한다. 그것은 20년동안 불철주야 오로지 챙겨온 화두의 참의미를 다듬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왔기에 가능 한지도 모르겠다.

겨울산사는 지금 고요한 무언의 침묵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그 침묵이 오래 잠들지 않게 죽비의 큰 깨침으로 초납자들의 버팀목 역할을 해 주는 법해스님이 안거하는 도량엔 겨울의 거친 바람도 결코 창호지를 뚫지 못하고 잠들 것이다.

납월 8일, 문득 부처님께서 새벽 별을 보고 "모든 것은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평범한 사람에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우친 자리에 우뚝 선 것처럼 지금 법해스님도 산중에 묻혀 그 심오한 진리 터득을 위해 죽비를 치는 한, 산중의 침묵은 침묵으로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호부터 3개월동안 '스님이야기'를 연재하는 정운스님은 74년 석남사에서 성우스님을 은사로 출가, 운문사 강원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했다. 현재 보령 세원사 주지로 청소년포교에 남다른 원력을 보이고 있고, 〈가습으로 사는 사람들〉 등 다수의 시집과 수필집을 펴냈다.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금모선원 해운정사
조 실 진 제
주 지 명 언
신도회장 서석인
부 회 장 김오홍 홍무진성
신 도 일 동
■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412
TEL : 051) 746-4812 746-2256

대한불교
덕대산극락사
지장기도 도량
주 지 김법륜
신도회 일동
TEL : 055) 352-7224

불교도서 도매
법 우 당
대 표 이제우
직 원 일 동
각종 불서 판매
■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24-2번지
TEL : 02) 994-4437
FAX : 02) 994-4438

(주)기 반
대 표 유돈성
임직원 일 동
참선명상 방석 제작판매 전문업체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 429-13
TEL : 031) 441-6181

만복당
대 표 김종호
임직원 일 동
각종 향 제작판매 전문업체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69-8번지
TEL : 02) 577-4155 FAX : 02) 577-0746

명품을 만드는 사람들
윤씨내승복사
대 표 청 안 (윤일대)
법복 소품 일체취급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2동 651-15
TEL : 053) 257-5663 FAX : 053) 257-5667
C·P : 018-525-5663

현 덕 사
주 지 현 종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569
TEL : 033) 661-5878
033) 661-5607

대한불교
해업산 약사사
주 지 금 해
신 도 일 동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영동리 480
TEL : 031) 767-1048/767-1058

대한불교 조계종 우리절
대 중 일 동
■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상림리 178
TEL : 031) 763-4674
FAX : 031) 763-2150

무봉산 보광사
주 지 성 현
신 도 일 동
■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명2리 629-1
TEL : 031) 339-3366
FAX : 031) 339-0758